석유화학, 대졸 초임연봉 5.9% 상승

인크루트, 상장기업 80곳 2006년 평균 5.1% 올라 ... 제약은 4.6%

상장기업들의 2006년 대졸 초임 연봉이 2005년보다 평균 5.1%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포털 인크루트가 자사 연봉전문사이트 오픈샐러리와 공동으로 상장기업 80곳을 선정해 대졸 초임 연봉을 조사한 결과 2006년 입사자 평균 연봉은 290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의 2005년 평균 대졸 초임연봉인 2766만원에 비해 평균 5.1% 오른 것이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3.9%)보다는 중견·중소기업의 연봉 인상률(7.1%)이 3.2%p 더 높았으며, 2006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연봉 차이는 2005년(450만원)보다 13.5% 정도 감소한 389만원을 기록했다.

초임 연봉 상승률은 금융업(3239만7000원)이 10.6%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8.4%), 석유화학(5.9%), 기타 제조업(4.7%), 제약(4.6%) 등이 뒤를 이었고 조사 대상업종 중에는 유통업의 대졸 초봉 인상률이 0.5%로 가장 낮았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대기업 연봉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견·중소기업들도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연봉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7>